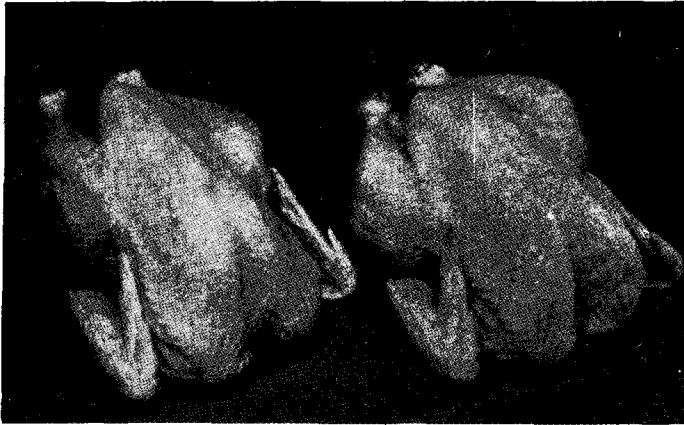


닭고기 도계유통 시행방법의 개선

7년동안 줄기찬 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미상태에 빠져있는
현행 도계유통 시행방법 개선을 위한 대안 제의

신 정 일
(九良랜드·육계업)



△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도계유통은 시행방법의 미숙
으로 7년 여 동안 양계 생산농가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

아무리 소리쳐 부르짖어 보아도 반향없는 메아리...

닭고기 생산농민들은 7년
여동안 도계단속에 시달려왔
다. 양계농민은 7년여동안
도계유통에 의한 시장혼란을
해결하려고, 해결해달라고 노
력하고 외쳐왔다. 양계농민은
7년여동안 항상 그들의 뇌
리속에 도계단속때문에 일어
나는 상품출하의 단결과 가
격하락에 대한 위협을 당해
왔다. 양계농민들은 지난 7
년여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수많은 회의와, 수
많은 청원 및 진정과, 당국에
대한 수많은 방문과, 수많은
대결과, 수많은 애걸과 호소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아
무리 소리쳐 부르짖어 보아
도 반향없는 메아리였을 뿐,
한낱 약한자의 힘없는 울부
짖음에 불과하였다.

농수산부 가축위생과, 서울
시 농축과, 그리고 연관산업계
로서 부화업체, 사료업체, 약
품업체, 기타 등등 - 그들은
오직 그들의 일(?)에만 바빴

었고 충실하였을 뿐 육계생
산농민의 고통에는 별반 관
심들이 없었다.

년간 2,500억원의 경제 물동량 산업.....

우리나라 전체 산업중에서
농수산업의 비중이, 그리고
농수산업의 업무중에서 양계
산업 - 그 중에서도 육계산
업이 점유하는 그 비중의 미
미함 때문에 육계산업은 어떻
게 되어가든 아무렇게 방치
해도 된다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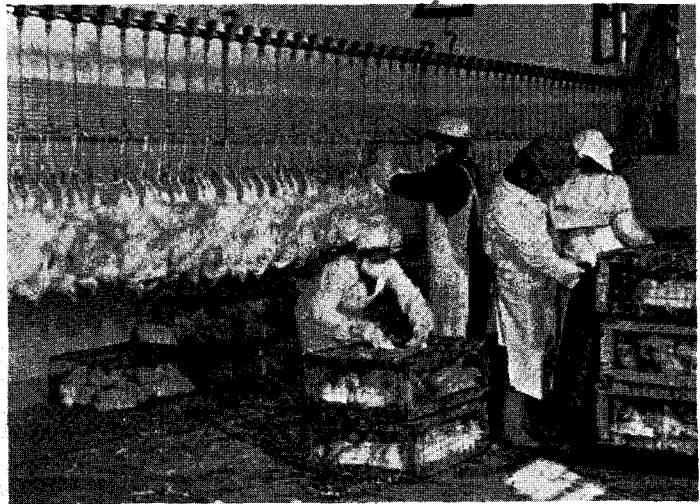
년간 육용계사료 총생산량
이 약 50만톤이고, 이 사료를
섭취하고 자란 닭이 상품화
되어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총물동량이 연간 약 2,500억
원의 경제총량은 앞으로 수
년 뒤 "일조원"의 외형산업
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이러
한 경제활동의 범주는 직접
육계를 생산하고 있는 수많은
양계농민들에서부터 사료업
자, 약품업자, 부화업자, 유통
상인, 그리고 이를 구매하
는 국민대중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어떤 개인이나 혹은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복수(複數)의 집단이 어떤 의견을 표현할 때, 그 의견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을 띄고 있느냐 함이 가장 중요하며, 그 의견을 주장하는 자의 입장이나 형편이 개입되지 아니한 완전한 객관적인 의견을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견교환을 할 때 서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open mind)진지한 자세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 또한 그 사회의 의식구조가 평가되어지는 것이다.

특히 도계유통의 문제점은 서로의 이해가 엇갈려 있는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적인 의견이 교환되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는 안됨을 모두는 알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러한 혼란이 계속되어서는 안됨을 알고 있다. 이제까지 7년 여의 고통과 시달림을 모두 겪어 왔고, 산업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 진지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야말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적어도 한두번 좁은 반대측의 입장에서, 뒤



△ 위생적인 도계장의 도계작업

집에서도 생각을 해보는 아량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진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가 된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양계농민, 기존시장의 생계상인들, 도계공장의 사업주들, 특히 관계있는 당국의 공무원들, 그리고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부화, 사료, 약품, 기타 여러분들 "88서울올림픽을 들먹이면서 조급해하지도 말고 언젠가 어떻게든 해결되겠지하는 무사안일주의적이지도 말고, 일조된 외형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리는 과연 무엇일 것인가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해야 한다.

닭고기 도계유통의 대 원칙에는 모두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왜 안되고

있는가? 과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닭고기 도계유통이 된다, 안된다 혹은 왜 안된다, 왜 된다는 등의 논의는 지난 7년 동안 주관적인 의견으로 각각 주장되어 왔고, 그 동안 많은 사건들과 일화들을 남기고 있다.

도계장의 처리능력문제, 국민들의 식생활관습문제, 닭고기상품의 특이성과 유통문제 양계농민과 상계상인들의 비협조 등, 기타의 제문제들은 7년동안 줄기차게 시도해도 왜 안되는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해답은 사실상 되지 못한다. 다람쥐 쳇바퀴돌듯이 지금까지 격렬하게 논의되어 온 앞의 사항들을 제쳐놓고 닭고기 도계유통의 대원칙에는 모두 찬성

■ 닭고기 도계유통 시행방법 개선

하고 있는데 도계유통이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간결하게 요약하면 다음의 두 가지 정책적인 문제로 집약된다.

도계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① **상권쟁탈의 경쟁**: 기존시장의 상거래질서를 새로운 유통업체로 넘기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찰열 때문이다.

② **보틀넥유통(Bottl Neck Marketing System)**: 대량생산에서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대량소비로 흘러가는 자연적인 물결을 단번에 한정된 몇개의 인공적인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는 소위 병(瓶)목 모양의 유통시장으로 전환하려 하는데 따르는 당연한 마찰반응 때문이다.

도계공장의 처리능력이 있다 없든가 도계공장에서의 위탁도계를 회피하고 자체도계 상품으로만 시장을 석권하려고 한다면 혹은 기존의 생계상인들이 적어지는 이유를 때문에 도계유통을 배척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항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 그들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생계유지와 이윤추구를 위한 자유경제체제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인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들은 당연한 상거래활동인 것이다. 이것은 양심이나 또

는 누가 좋고 나쁘다하는 등의 문제를 떠나서 상인이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사업태도일 뿐이다.

7년동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도계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해답은 바로 앞에서 열거한 두 가지의 정책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골치아픈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1조원의형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해답은 무엇인가?

가장 소망스러운 도계유통시행을 위한 대책: “완전 자유도계유통시스템”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도계를 하든지간에 서울 시내에서 생계의 계류판매행위만을 금지하고 일단 도계된 상태의 닭고기만을 판매도록 한다.

이상의 도계유통 시행방법은 현재의 도계장은 물론, 기존의 생계상인들도 도계장에서 위탁도계를 하든 혹은 외부의 어느곳에서 도계를 하든, 또는 소매상이 직접 도계하든, 혹은 기존의 거래질서에 따라 차량 대상인들이 도계해서 중간판매를 하든 도계하는 주체와 도계장소와 도계방법등은 완전히 자유화하고 다만 생계 계류판매만을 절대금지하고 도계상품만을 비

치판매케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방법은 언뜻 생각할 때 매우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일 것 같지만, 필자의 머리내에서만 적어도 점대로 무질서하든가 비위생적이 될 수 없을 것이며, 더욱 위생적인 닭고기 도계상품이 판매되고 더욱 활발하면서도 질서정연한 시장 거래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결코 두계장소가 산모통이나 개천가에서 아무렇게나 나타나지는 아니할 것이다. 판매를 위한 도계행위는 한번에 적어도 수십마리에서 수백마리를, 한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계를 위한 장소나 시설은 상인이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결할 것이다.

이러한 도계유통이 1~2년간 시행되면 자발발생적으로 우수한 도계시설을 갖춘 대소규모의 도계장들이 여기 저기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가장 자연적인 육계산업과 유통산업의 발전인 것이다.

이러한 도계유통방법을 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완전 자유도계유통 시행의 효과

① **도계유통 목적달성**: 생산농민, 유통상인, 그리고 당

국이 고심하고 있는 도계유통이 일단 시행케 되고 닭고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없어진다.

② 양계농민 보호(생산자 보호): 생산자가 유통혼란으로 고통받는 사태를 방지하고 양계농민을 보호하게 된다.

③ 소비자 보호: 도계장과 일반시장상인들을 포함한 유통업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서로간에 선의의 자유경쟁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품질경쟁, 가격경쟁, 서비스경쟁이 나타나므로 소비자가 보호되고 유통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④ 기존의 시장 영세생계상인 보호: 서울시 전역에서 닭고기 유통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시장상인들의 생업을 계속케함으로 써 서민생활을 보호하게 된다

⑤ 닭고기 소비촉진으로 양계산업발전에 기여: 손쉬운 유통방법으로 인하여 닭고기 판매처가 주택가의 구멍가게에 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상품소비 증대방법의 내원칙적인 소비자가 가장 가까운 옆에, 그리고 보다는 많은 장소에 상품을 비치 판매하게 되므로 닭고기 소비촉진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양계산업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⑥ 도계유통산업 발전에 기여: 이러한 완전자유도계유통체제가 1~2년 계속될 때 우수한 도계시설을 갖춘 도계장이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닭고기에 대한 도계유통산업의 완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⑦ 궁극적으로 기존 도계업자의 사업활동영역을 넓혀줌: 완전자유도계유통시스템은 언뜻 보기에 현재의 기존 도계업자의 활동범위를 좁히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유통혼란으로 모두가 고통당함보다 하루빨리 도계유통이 일단 정착됨으로서 이미 도계시설을 갖춘 기존 도계장측에서 경쟁의 기선을 제압하고 현재의 부분적인 도계시장이 아니라 전체의 도계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완전자유도계유통체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현재의 대량구입처인 슈퍼마켓 등이 일반 영세상인쪽으로 구매처를 전환시키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육계유통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는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계단측에서 육계산업과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도계유통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생각하고 기술하여 보

았다.

이러한 완전자유도계유통체도는 현재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꼭 이 법 때문이라면 지난번 법의 시행을 유보했듯이 일단 1~2년동안 법의 시행을 유보해놓고 그 기간동안 완전자유도계유통체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을 다시 변경제정한 뒤에 실시해도 조금도 늦지 않다. 만약 2~3년전에 이 제도가 채택시행되었다면 지금은 이미 도계유통이 충분히 정착되었으리라,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지금은 모든 계층과 모든 부류가 이루는 화합의 시대이고, 줄속과 가식을 떠난 진정한 발전의 시대이다. 소망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는 하루아침에 손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도계장측과 시장의 영세상인과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살리고 그 어느 측도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질적이고 진정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상은 결국 현재로서는 적어도 정책문제이며 당국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결론지어진다. 두손 모아 합장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